



노홍철의 철든 스위스 여행법.

인생의 절반, 마흔 맞기엔 스위스가 제격

2m 넘는 폭설 속에서 썰매 체험

노곤노곤 정통 알파인 스파 체험

제임스 본드를 모방한 보드 질주

기차 식당칸에서 낭만적인 점심 식사

세계에서 제일 가파른 퓨니쿨러타고 눈발 하이킹과 패러글라이딩

서점주다운 책방 투어와 문화예술인다운 문화 투어

2018년 스위스 홍보대사로 위촉된 노홍철이 스위스정부관광청의 초청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올해 마흔을 맞는 노홍철은 20년 전 대학생이었을 당시 스위스를 여행한 이래 이번이 무려 15번째 방문이다. 워낙 여행을 좋아하는 체질인 그에게도 스위스는 특별했다. 스위스의 자연은 햇빛 뽀한 날에도, 구름 잔뜩 흐린 날에도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이 스위스에 대한 그의 이미지다. ‘스위스를 찾을 때마다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는 노홍철은 기막힌 조화로움 속에서 색다른 아름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데서 항상 감명을 받는다고 했다.

‘여름에 호수에서 수영을 해 본 사람이라면, 겨울에는 알프스에 둘러싸인 슬로프에서 스키도 타 보아야 하고, 야생화가 펼쳐진 청초한 들판에서 하이킹을 해 본 사람이라면 자동차 출입이 금지된 도심의 구시가지에서 여유로운 산책도 즐겨 보아야 한다.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했다면 일몰을 보기 위해 구름의 바다 위로 올라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스위스 여행 지론이다.

한편 스위스의 현지 뉴스 매체인 블릭(Blick)에서는 이번 노홍철의 스위스 여행 소식을 생동감있게 보도하기도 했다. <https://www.blick.ch/news/wirtschaft/ro-hong-chul-soll-landsleute-in-die-schweiz-locken-das-neue-korea-heidi-ist-jetzt-ein-kerl-id7844219.html>

스위스 프렌즈이자, 스위스 베테랑 여행자로서의 노홍철이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스위스의 생생한 액티비티를 소개한다.

1. 오롯이 눈을 즐길 수 있었던 체르마트(Zermatt)

31년만에 폭설로 체르마트에 진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취리히에서 체르마트까지 이동하는 중 발생한 폭설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을 묶은 가운데, 유일한 이동 수단이었던 헬기를 타고 체르마트를 찾은 노홍철은 오히려 이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였다.

럭키가이었기 때문일까? 체르마트 내에서도 폭설로 인해 대부분의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들이 운행을 하지 않았던 가운데 유일하게 운행했던 수네가 파라다이스(Sunnega Paradise)까지 다행히 오를 수 있었다. 2미터 가까이 내린 눈 위에서 그는 동네 꼬마들과 함께 신나게 눈썰매 체험을 즐겼다.

이후 체르마트의 리드베그(Riedweg)에 위치한 체르보(Cervo) 리조트 야외 펍에서는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아프레 스키(après-ski: 스키 뒤풀이) 파티를 즐겼다. 눈 치우는 기계 옆에서 나오는 눈을 맞으며 아이처럼 즐거워했고, 현지 밴드의 공연 음악에 맞추어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러한 가운데 체르보 리조트 뒤로 그림같이 보이는 마테호른이 구름이 걷히면서 빼꼼이 모습을 드러내자, 자연의 신비에 경이로움과 감탄을 느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체르마트까지의 오고 가는 길은 힘들었지만 눈이 오히려 너무 예쁘게 쌓였기 때문에 체르마트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위력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던 일정이었다.

2. 설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로이커바트(Leukerbad) 야외 스파

체르마트를 나와 로이크(Leuk)에서 버스를 타고 로이커바드로 가는 길은 정말 아름다웠다. 아침해가 동터오르는 길을 버스가 굽이굽이 오르내리는데, 한 굽이 돌 때마다 볼 수 있는 짜릿한 절경에 눈 깜빡이는 시간까지 아까울 지경이었다. 알프스 스파 마을로 유명한 로이커바드에 도착해서는 알펜테름(Alpentherme)에서 야외 스파를 했다. 저녁 해가 어스름 질 무렵 알펜테름에서 병풍같이 둘러쳐진 설산을 바라보며 여유를 즐기고, 한 한국인 신혼부부를 만나 그들의 행복한 시간에 잠시 동참하며 더불어 행복한 감정에 충만해 지기도 했다.

저녁에는 로이커바트 유일의 5성급 호텔인 레 수르스 데잘프스 호텔 & 스파(Le Sources des Alpes Hotel & Spa)의 자랑인 와인셀러를 방문했다. 발레(Valais)주의 와인 라벨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셀러에서 향기 좋은 와인을 훑어보며 그는 사색에 잠겼다. 마흔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그 곳에서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말이다.

3. 쉴트호른(Schilthorn) 스노우보드 체험과 깎아질듯한 절벽 위에 위치한 산골마을 뤼렌(Mürren)

로이커바드에서 무려 7 번을 갈아타며 뤼렌으로 향하는 기차길에서부터 그는 감탄을 연발했다. 아날로그적으로 기차 창문을 내려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스위스 아가씨’ 대신 ‘아름다운 스위스 아저씨’ 요들을 부르며 즐겁게 뤼렌역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알프스 동화 속 한 페이지와 같은 뤼렌의 첫 인상에 큰 감동을 받으며, 마을 반대편에 있는 알펜루 호텔(Hotel Alpenruh)까지 걸었다. 아찔한 절벽 위에 위치한 이 산장식 호텔은 머무는 내내 스위스 알프스가 선사할 수 있는 진정한 휴식을 그에게 안겼다.

그는 ‘007 여왕 폐하 대작전’의 로케이션 장소인 쉴트호른에서 제임스 본드가 스릴 넘치는 스키 추격전을 보여 주었던 곳에서 스노우보드를 체험했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스노우보드는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좀 긴장되었지만 전문 강사의 안내로 처음 아찔한 구간을 내려오니, 알프스 명봉들이 파노라마 장관을 펼쳐며 그를 맞았고 그 역시 여러 차례 탈 수록 더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그는 호텔 바로 앞에 렌탈숍이 있고, 렌탈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다는 사실, 렌탈을 하고 나와 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스키장에 내려 바로 보드를 탈 수 있는 이 편리한 접근성이 너무 놀라웠다고 감탄했다. 놀라운 것은 007 마크가 찍힌 햄버거도 마찬가지였다. 쉴트호른 정상에 회전 레스토랑에서 맛본 햄버거에 찍힌 007 마크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융프라우지역의 모든 산들이 펼쳐져 있는 스키장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던 그는 ‘그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만 스위스를 여행했는데 이번에 체험한 겨울은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의 계절로 기억될 것 같다’고 감회를 말했다.

4. 빨간 기차를 타고 가는 설레이는 루체른(Luzern)



쉴트호른에서 루체른으로 향하기 위해 골든패스라인 구간인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Interlaken Express)에 탑승했다. 특히 겨울에도 푸른 알프스 전초지대의 아름다움과 정겨운 마을들, 마을들을 지날 때마가 발견하는 예쁜 호수들의 풍광이 차장 너머로 펼쳐지는 가운데 기차 내에 마련된 식당칸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즐거워 했다. 하늘에 낀 구름조차 그에게는 낭만적으로 느껴졌는데 특히 룽게른 호수(Lake Lungern) 전후의 구간에서 그 특유의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루체른에 도착했을 때 마침 부활절 전의 전야제 같은 음악축제가 루체른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축제를 잠시 즐기며, 패션리더답게 특별한 사람들의 의상을 유심히 관찰했다. 이들은 성스러운 부활절이 다가오기 전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 일부러 서로 무서운 복장을 한 것. 노홍철은 루체른 구시가지 쇼핑 거리를 누비다가 그런 복장들을 파는 가게에서 재미있는 의상 쇼핑도 하였다. 구시가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무제크 성벽(Museggmauer)에서는 루체른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했다.

5. 친구가 생각난 슈토오스(Stoos) 스노우슈(snowshoe) 하이킹 및 패러글라이딩

루체른 근교의 2017년 12월에 오픈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퓨니쿨러를 타고 슈토오스 산에 올랐다. 110%나 되는 아찔한 경사면을 오르며 직립을 유지하기 위해 커다란 드럼통같은 차체가 회전되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다. 노홍철은 슈토오스에 있는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 산 정상에 올라 스노우슈를 신고 눈발 하이킹을 체험했다. 여름이면 릿지 하이킹으로 유명한 프론알프슈톡에서 내려다 보는 구름의 바다는 대단했다.

슈토오스에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단위의 스키어들이 많았다. 쉴트호른이 주는 장엄함과 다른, 보다 한국 스키장같이 친숙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기분에 젖었다. 바로, 주변 사람들과 꼭 다시 한 번 오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실제로 그는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생활하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스위스로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라고 권하곤 한다고 전했다.

그는 내친김에 패러글라이딩에도 도전했다. 하늘을 날며 바라보는 스위스의 겨울 풍경은 그 어떤 순간보다 짜릿했다. 프론알프슈톡 정상에서 날아올라 슈토오스 마을로 낙하하는 구간이었는데, 무엇보다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체험했다.

6. 마음의 약방, 생갈렌(St. Gallen) 책방 투어

생갈렌은 그에게 정말 기대가 많았던 곳이다. 책방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력 때문이기도 했다. 생갈렌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게 만든 수도원 부속 도서관에서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1758년부터 1767년 사이에 만들어진 도서관은 8세기에 만들어진 책들을 포함해 진귀한 도서로 가득하다. 수도원 도서관을 다 둘러본 그는 '영혼의 약국'이라는 도서관 별명을 '마음의 약방'이라고 재미있게 고쳐부르기도 했다. 실제로 오래된 고서들을 보며 숙연해지고 마음이 평온함을 느끼고, 맑은 편 교회 첨탑에 올라가 생갈렌 수도원과 도심의 아침 전경을 보며 여러 생각이 들기도 했다.

수도원을 나선 노홍철은 '2017년 최고의 서점'으로 선정된 '추르 로제(Zur Rose)'를 찾았다. 생갈렌은 스위스에서도 가장 서점 밀도가 높은 도시로 약 75,000명의 인구에 7곳이나 되는 책방이 있다. 추르 로제는 그 공간 자체도 아름답지만, 한 번쯤 들러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건물 자체가 몇 백년 된 곳으로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려 공간 구성을 했다. 문학책을 비롯하여 아이들책 셀렉션도 있고, 지하 와인 저장고를 바꾸어 만든 공간은 정말 핫했다. 특히 옛 것을 그대로 살리는 디자인을 좋아하는



노홍철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책방 주인은 정기적으로 낭독, 프레젠테이션,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노홍철과 나누었는데, 이 곳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다.

7. 취리히(Zürich) 멋과 맛 체험

노홍철에게 취리히는 특히 맛있는 음식과 취리히 웨스트의 임 비아독트(Im Viadukt) 쇼핑 거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아우구스트(AuGust) 라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즐겼는데, 샐러드부터 메인 요리까지 무엇 하나 놓치는 않은 맛에 놀랐고, 모던한 분위기가 마음에 쏙 들었다.

취리히 웨스트의 쇼핑은 노홍철의 취향 저격이었다. 옛 고가를 개조해 만든 개성있는 숍들에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노홍철에게 취리히 쇼베르 초콜릿숍(Conditorei Schober)과 막스 쇼콜라티(Max Chocolatier)에서의 시식과 쇼핑은 달콤한 경험이었다.

취리히의 시립 미술관, 쿤스트하우스(Kunsthaus)에서는 모네, 샤갈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다. 대중문화인답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그림을 역시 선호한다는 그의 솔직한 답변이 꾸밈없이 들렸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